

달콤한 음악이 있고, 다정한 사연이 있는

〈달콤한 나의 라디오〉

글. 최지은 BBS 라디오기술부 사원



BBS FM 101.9MHz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일 2시간 동안 방송 중인 <달콤한 나의 라디오>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취자들에게 유쾌하고 발랄한 퇴근길 메이트가 되어 주고 있다. 지난 2024년 9월 가을 개편 때 신설되어 아직 ‘첫돌’도 맞이하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그동안 BBS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으로 라디오 청취자들을 사로잡았고, 애청자들에게 ‘달나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발랄하면서도 따뜻한 <달콤한 나의 라디오>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달콤한 나의 라디오

방송시간
매일 저녁 7시~9시

PD
조원형

진행
김명석, 김한나

방송사
BBS FM 101.9MHz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사연은?**



지난해 7월 BBS 불교방송은 1990년 개국 이래 처음으로 '라디오 진행자 공개 오디션'을 개최했다. 지원자격은 단 하나! BBS 라디오를 애정하고, 라디오 DJ가 되어 청취자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 나이나 성별, 경력 등의 제한 조건 없이, 그저 라디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자 오디션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 열정 가득했던 300여 명의 오디션 지원자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BBS의 새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영예의 수상자 3인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중 '대상'을 수상한 김한나 성우가 2024년 가을 개편을 맞아 신설된 프로그램 <달콤한 나의 라디오>의 DJ로 낙점되어 김명석 아나운서와 함께 똑디와 명디로, 매일 저녁 청취자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라디오 진행자 모집 오디션 포스터



진행자 오디션 시상식

**나날이 더해가는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



<달콤한 나의 라디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땐, 퇴근길의 지친 청취자들을 다독이는 잔잔한 힐링 프로그램이 아닐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예상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깨져버렸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대 방송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 프로그램에는 흥과 에너지가 넘친다. 처음엔 '이 방송 뭐지...?' 싶어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명디와 똑디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어느새 방송 내내 따라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시크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명디'와 한결같은 하이텐션으로 웃음을 이끄는 '똑디'. 정반대인 듯 보이지만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 이 둘의 케미는 듣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든다. 특히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 음악이 나갈 때마다 흥에 겨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는 똑디와 그런 똑디를 익숙하다는 듯 무심하게 두고 조용히 청취자 댓글을 읽는 명디의 모습이 절묘한 대조를 이룬다. (심지어 보이는 라디오를 하지 않을 때도 똑디는 춤을 춘다.) 이렇게 다르면서도 묘하게 잘 맞는 두 사람 덕분에, <달콤한 나의 라디오>는 듣는 재미와 보는 재미를 모두 놓치지 않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어가고 있다.



보이는 라디오 방송 중 텐션 업



보이는 라디오 방송 중 텐션 업2

**라디오의
주요 코너 소개!**



• 달디달디단~ 밤.수다

달디달디단 밤양갱... 만큼이나 달콤한 한밤의 수다 시간. 다양한 주제를 두고 청취자와 문자로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재밌는 콩트는 덤!

• 라이벌대전

발라드의 황제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부터, 식사시간 마다 늘 하게 되는 메뉴 고민까지!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일상의 소소한 라이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나의 취향을 파악해보는 시간

• 너도 나도 재밌는 불교

불교~ 나만 또 빼고 재밌는 거 하네?!는 이제 No, No! 한 주간의 사회 이슈, 혹은 일상 속 사소한 고민 상담, 뭐든 좋습니다. 조금은 더 새롭고 참신한, 재밌는 불교 이야기 나눠볼게요.

• 목요일에 만나요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모시고, 오래된 친구와 수다 떨 듯,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 주말에.. 뭐 먹지?

어딘가 모르게 출출한 시간 저녁 7시! 저녁 메뉴, 야식 메뉴, 혼술 안주 등등. 명석&한나가 준비해 온 레시피 중, 더 맛있는 레시피를 골라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오늘 1부 끝곡을 정합니다!

• 똑똑똑~ 퀴즈 왔어요^^

세상은 넓고 라디오 프로그램은 많다! 그러나 오늘 밤도 달나라를 찾아와준 청취자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해드리고자 준비한 퀴즈 코너. 난이도는 최하! 선물은 팍팍!

• 쏠우주적 차트쇼

K팝의 기원을 찾아 연도별, 주제별로 알아보는 음악 차트쇼. 전우주가 감동할 만한 추억의 명곡들을 퍼레이드로 만나보는 시간

• 명곡이 빛나는 밤에

한국 가요사를 수놓은, 무수한 별처럼 아름다운 명곡들! 대중가요 전문가와 함께 얕고도 넓게, 깊고도 다채롭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100회 특집 케이크



100회 특집 보이는 라디오 방송 중 동화구연 코너



청취자 편지 선물

개인적으로는 ‘주말에... 뭐 먹지?’ 코너를 특히 좋아한다. 1부에서 명디와 뚝디가 하나의 음식 재료를 주제로 각자 다른 레시피를 준비해 소개하고, 청취자들은 어떤 요리가 더 먹고 싶은지 투표를 통해 선택한다. 음식을 좋아하는 데다, 코너에서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 달걀을 툭 깨는 소리, 지글지글 요리되는 소리 등 여러 효과음이 들려오면 어느새 나도 레시피 속 음식에 푹 빠져 있게 된다. 특히 저녁을 못 먹은 날엔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배가 고파지고, 결국 그날 소개된 메뉴를 따라 먹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평소 시도해보지 않았던 요리를 알게 되는 재미도 이 코너만의 매력이다.



게스트 박상철

| 마무리 소감



팟캐스트나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매체가 라디오의 자리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청취자들의 곁에서 그들의 일상을 담아내고 누구보다 가깝게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정서적 공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라디오는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는 장점을 지닌다.

내게 생긴 좋은 일을 나보다 더 신나서 축하해 주고, 하루 중 속상했던 일을 털어놓으면 나보다 더 소리 높여 화를 내주기도 하고, 나의 생일이란 말에 생일 축하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불러주기도 하는, 순도 100%의 다정한 ‘나의’ 편. 그래서 라디오가 전해주는 온기는 더없이 따뜻하고 달콤하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른다. 하루의 끝, 내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달콤한 나의 라디오>의 문을 한 번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

라디오 음향을 담당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다른 방송의 라디오도 듣게 됐고, 자연스럽게 라디오에 대한 애정이 커졌다.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 매력을 함께 느끼고 공감해준다면 라디오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 단단해질 거라 믿는다. 